



[시장동향] 헝가리, 인플레이션 압박에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 1리터 우유를 0.9리터로 줄여 판매하는 등 가격은 유지하되 크기나 양 줄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헝가리에서도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양을 줄이는 현상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1리터에 판매되던 우유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0.9리터로 줄여 판매되고 있으며, 요거트, 버터, 치즈 및 크림 등 유제품은 물론 소시지, 햄 등 필수 식품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버터와 치즈의 경우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제품 용량은 물론 포장재 부피를 줄여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제품 가격은 동일하나 크기나 양을 줄이면서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비해 소비자가 눈치 채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출처 : dailynewshungary.com, 8월 3일 >

[시장동향] 네덜란드, 치즈 가격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영향

- 치즈 가격 1년 전 대비 30~40% 상승...가격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될 것



네덜란드에서 생산비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치즈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네덜란드 낙농협회(ZuivelNL)에 따르면, 치즈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로 지난 2020년 1인당 치즈 소비량이 약 26kg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생산비가 크게 오르고 원유생산량 감소로 치즈 생산량도 감소함에 따라 치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규제 강화로 낙농업이 위축되고 공급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까지 눈에 띄는 소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치즈를 구매하거나 소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businessinsider.com, 8월 2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